



의 吟味하지 않을 수 없다. 將來를推究한다면萬一の「遺缺」이 있다 하면 그야말로 幸負키 어려운 不幸이 되는 바외이다. 비터에 家屋을 建築하기는 建築一事에 止하지 만은 不備한 建物이 있는 바외가 新建을 하거나 破壤의 勞를 더하게 되는 바외이다. 大會의 通過內容을 接하지 않고 適否如何를 檢論할 道理는 없으나 大會準備會의 經過報告를 들면 戊辰年十一月中旬에 비로소 發起相談會가 되었고 同月三十日에 發起總會를 開하고 大會期日(二月三日)과 討議項目을 定하였다 하니 萬全을 期待하야 마지 않는 吾人은 大會外의 經過期日이 닢어나 促迫한 感이 없지 않다. 勿論時日이 길다고 萬全을 期必할 것은 아니요 切어도 「制定委員」에 限하여만 相當時日을 要하리라고 生覺된다. 더구나 朝鮮이란 「政治的 特殊關係」에 있는 만큼 宗規制定이 如干 複雜하지 않을 줄 안다.

今般日本帝國議會에 通過될 可能性을 가진 「宗教團體法案」이 殖民地인 朝鮮外지 實施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萬一 實施된다면 法規上만은 參照가 있스야 할 줄 안다. 今般 法案에 管長又는 住職 次은 認可制가 아니라 屆出制로 된 것을 볼진데 朝鮮寺刹令에 比하여 破格的 差異가 아닌 가 去般中央 敎務院 財團法人 成立에 緣起되야 個々本山이

나 可能할 만한 範圍에 充實한 統一的 儀式이 있스야 할 것이다. 其外十個項目이 모두 重要치 않은 것은 아니나 「財政」「社會」「佛僧」等目은 時勢에 應하여 變遷된 지 손수 이 改定할 수 있스니가 取할 必要가 없다 하더라도 「宗憲 敎務院 憲章」 俗規 三問題로 말하면 切어도 檢究에 檢究를 더하야 大衆的 期待를 커바리지 안야 되 줄 안다. 이만 한 重大問題를「一個月間」에 完成 通過하랴 할은 닢어나 「短期」가 아닌 生覺된다. 不幸이 大會員의 資格이 없는 吾輩로서는 如何한 準備를 가지고 大會에 參席하는지 「大會員의 所屬」은 알 수 없스나 會의 經驗上 各々別個의 憲規를 作成持參하지는 못할 줄 안다. 設使各々持參한다 하더라도 何等의 所用이 없는 것이니가 期必코 發起會에서 起草한 「原案」에 依하여 「增削」에 勿칠 것이다. 勿論 그것이 常道인 줄 안다. 그러면 적어도 「本末寺總會」에서 選出된 代表의 行事を 完全히 하면 本末寺總會를 열기 전에 該原案이 各自의 觀點을 要할 것이다. 그리고 本末寺總會當時에 相當한 「豫準 討議」를 經하야 萬一 加削點이 있다 면 充分이 討議한 結果 「該總會의 代表的 意見」을 綜合하야 가지고 然後에 大會에 參席하야야 有意한 大會員의 實務를 發揮할 수 있을 줄 안다. 이만 한 經路를 밟자면 到底 卅月餘의 時日도 可能하지 못

「寺法改正」을 行하얏스나 戒律問題에 多少 增減이 있을 줄 안다. 其外住持 選舉方式 評議會等舊法에 比하면 多少 進步의 加味를 볼 수 있스나 如何히 住持를 行政官廳에서 罷免할 수 있는가 如何히 現行 寺法으로 因하야 가지(廢舊를 行)고 있는가 根本의 改正을 하로 말비 運動하야 되 줄 안다. 어느 章目에서 이 問題를 討議하게 되었는지는 몰으나 統一的 寺法改正 運動것은 別로히 項目을 定하야 討議할 必要가 없든가 한다. 「敎務院憲章」으로 말하면 性質上 現行 寺刹令又는 寺法上 拘碍된 問題가 만을 줄 안다.

以上은 法律上으로 互相矛盾을 難關을 開한 것이요 다시 法律上 關係가 없는 「內規」에 對하야도 如干 重大한 問題가 아닌 줄 안다. 實行性이 적은 「戒律」도 말하면 「知而後犯罪」를 더할 念慮가 있는 것이요 그러라고 너머 放置하면 「宗敎家의 威信」에 關係되는 일이고 참으로 至難한 問題가 아닌 가 斷斷한 例로 말하면 「五戒」를 犯지 안은 僧尼가 어대잇스리요 만은 「飲酒」치 안은 僧尼가 어대잇스리요 近來 日本 僧侶界에서 「禁酒問題」에 大々의 活動을 開始한다 는 말을 들었거니와 朝鮮 寺院洞口에 「酒店」업는 곳이 어대잇는가 이것 是問題는 枚擧키 難하거니와 다음 「宗敎儀式」것은 것도 如干 重大한 問題가 아닌 줄 안다. 切어도 附屬이 잇는 僧尼는 더구나

하리라 生覺된다. 「大會員의 資格及 選出方法」에 對하야 「多少 遺缺」이 없지 안는 것은 첫째 「僧侶大會」라는 名稱부터 「佛敎徒大會」로 되지 못한 것이 「大衆佛敎」를 忘却한 歎이 없지 안다. 切어도 「佛敎」란 敎團의 「宗憲」으로 말하면 「僧尼」의 專用佛敎가 아닌 以上佛敎를 信奉하는 敎人이면 「僧徒」도 다 갖은 關係가 잇을 줄 안다. 本末寺를 「單位」로 삼는다 면 該本末寺에 所屬된 「僧信徒」를 代表할 「總代一人式」만이라도 大會에 參席케 하는 것이 勿치 안을 기한다. 布敎에 對한 「根本策」것은 項目에는 매우 有力한 資料를 供給할 수 잇스리라고 生覺한다.

다음 「學生除外問題」로 말하면 遺憾이라 함보다 「情的」으로 만은 切々함을 느끼게 된다. 大體로 말하면 準備時代에 實際 經驗이 없는 學生으로 만은 大僧 大德 先輩들 압해 勿論 可取할 意見이 잇스리요 만은 그래도 所謂 「專門學府」에서 배우고.

「成年」齒을 닢은 者로 말하면 內容이 어잇건 업건 敎國 將來를 云々하고 自己理想을 夢꾸는 處地에 잇스나 現今 朝鮮 本末寺 僧侶 總括의 知解程度에 比하야 大會員의 資格이 全無로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야 「新進銳氣」도 어느 項目에는 必要가 없든가 합니다. 「中國革命」의 「學生運動」에

